

# “지방의원, 갑질·이권개입 많다...탈권위 의식 갖춰야”

## 광주 공무원노조 대상 '지방의회' 설문조사

### 응답자 절반 “집행부 견제·감시·입법 책무 못해” 특혜 요구 경험 56%... 처벌 강화·윤리교육 필요

광주지역 공무원 10명 중 5명은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활동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는 지방의원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국공무원노조통합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조합원 5,600여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공무원노조는 탈권위 의식(23%), 도덕성(22%),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18%) 등을 꼽았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로는 보통(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긍정은 9%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은 각종 갑질(40%), 이권개입(29%),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23%)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낮게 평가했다. 의원 개인 또는 보좌관으로부터 알선·청탁·인사개입 등 특혜를 요구받은 경험이라는 응답률은 56%에 달했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존재한다(53%), 선심성 예산을 반영한다(52%) 등을 지적하는 응답도 나왔다. 지방의원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5%를 차지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32%), 권위적 태도(30%), 각종 이권개입과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노조를 통한 항의(41%)와 시민사회단체와 대외적 행동(31%)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했다. 의회 차원의 제명(36%), 의원직 자진사퇴(35%), 공개사과(24%) 등 비리나 비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비위와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기준(35%), 윤리의식 결여(25%), 일당독식 구조로 인한 책임정치 실종

(19%), 시·구청 집행부 목인이나 봐주기(16%) 등을 꼽았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다양한 비위와 갑질 사례도 제보됐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온 재활용 폐기물을 지인에게 넘기도록 담당공무원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의원이 있었다. 일자리와 수의계약 요구, 관급자제 선정 관여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일부는 실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광산구의회 한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 방문을 압박하고, 인근에 경쟁상점이 들어서자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의원은 식사수발, 밥값 계산, 의회 직원 출퇴근과 휴가

보고, 법원 방문 때 공무원 동행, 병원 진료 시 관용차와 운전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상인회장과 갈등을 겪자 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업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복구의회 의원의 갑질 사례도 제시됐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입법과 집행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다다수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윤리교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3,375명이 참여해 응답률 60%를 보였다. /황애란 기자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양향자·윤영찬 의원 등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의회, 공공의료기관 예타면제 건의안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전 상정

광주시의회는 오는 12일 개최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수익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건립사업도 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료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긴급 의료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정기 브리핑

### 양향자, 금호중·작은도서관에 양서 500권 전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울)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과 함께 500권의 양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회도서관 도서기증 사업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의 학교나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500권의 책을 기증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양 의원의 요청으로 광주시 서구 금호중학교와 화정3동 작은도서관이 선정됐다. 양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국



회도서관이 엄선한 양질의 도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오섭, ‘공공기관 이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의원은 10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주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 포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수

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한 전국 동향 분석 및 진단, 지방이전 관련 광주의 대응전략 마련,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천전략이 발표된다.



조 의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기틀을 세웠다”며 “혁신도시 시즌1은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의원이 9일 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무직 당직자로 ‘김희재 법률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

·형사상 소송 등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 김 의원은 “27년여의 법조인 경험을 살려 법률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당과 긴밀히 협력해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민을 위한 법과 법무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



침하기 위해 법률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률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로 의정부지법 검사장, 광주지법 검사장을 거쳐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 윤재갑, ‘공익형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부터 직불금 수

령 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원에서 많게는 67조원이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



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직불제 취지에 맞게 농가들을 배제하는 공익형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금 당장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국민안전 캠페인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